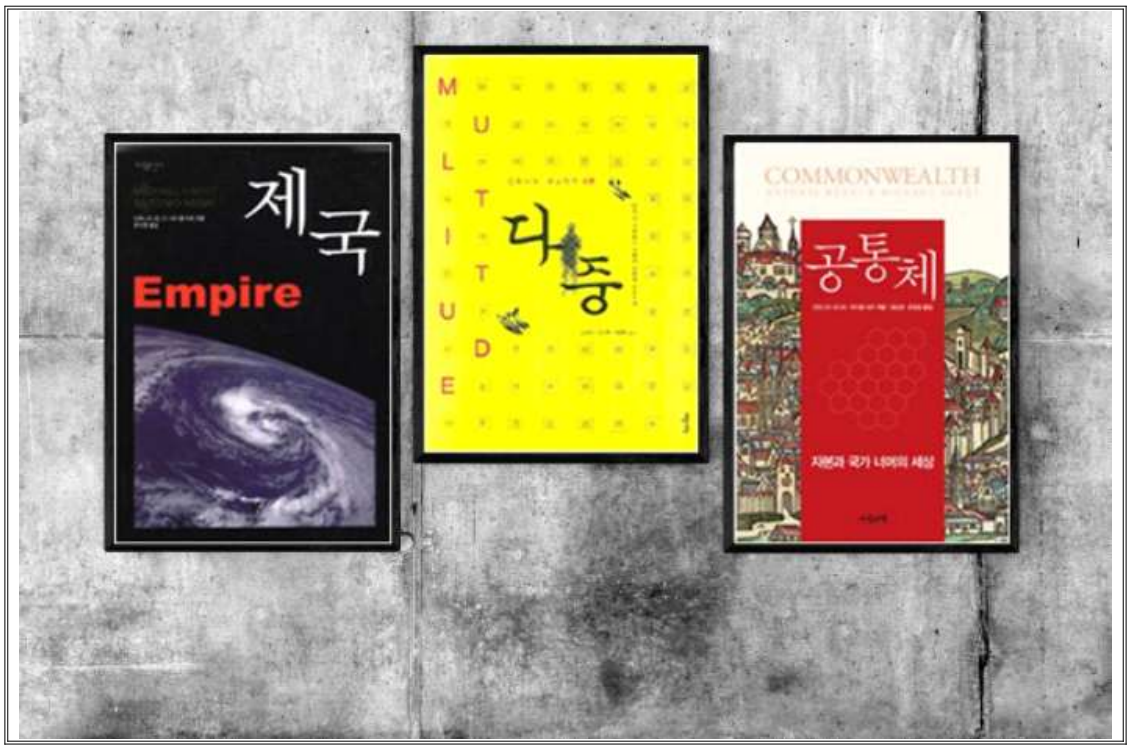
글로벌시대의 주체성: 하트와 네그리



1. 하트와 네그리, 새로운 개념의 주체성

*** 새로운 제국의 등장**

네그리와 하트는 기존의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전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주권 형태로 '제국'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유럽 국민국가들 간의 영토 분할로 나타난 기존의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은 결코 영토적인 권력 중심을 만들지 않고, 고정된 경계나 장벽들에 의지하지 않는다. (탈중심화, 탈영토화)

국민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주권이 네트워크 권력에 기반한 제국적 주권으로 변형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네그리와 하트는『제국』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되어 온 제국주의에 대한 상(像)을 정정한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강조하던 그동안의 제국주의 상을 해체한다. 특히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의 얽히고설키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분에 집착하는 세계체제론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두 사람[하트와 네그리]가 말하는 세계화는 국가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주체의 국가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개념의 주체성을 요구한다. 그처럼 새로운 주체성은 지금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제적 이주의 흐름과 글로벌적 도시에서의 혼합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65).

*** 네그리와 하트의 관점의 의의**

노동-자본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과 연결된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흐름: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최극단적 약탈, 잉여적인 사람으로 구성된 새로운 글로벌 '하층계급underclass', [마지막으로] 노동 간의 새로운 젠더화된 그리고 인종화된 위계질서—[즉] 초국가적 환경에서 국가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 계통상으로 층화된 글로벌 프롤레타리아의 부상(68).
로빈슨의 언급은 '초국가적 환경'에서 여전히 계급, 인종, 그리고 젠더 관점에서 '노동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글로벌 프롤레타리아의 등장은, 하트와 네그리가 지적하듯이, 이 계급이 새로운 저항과 해방의 역능을 열어주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발달이다"(68).

=> 네그리와 하트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화 등 다양한 차이에 입각한 노동자 범주 내부의 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전통적 막스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네그리와 하트의 관점의 한계**

보론(Atilio A. Boron)
하트와 네그리의 시각은 "너무 당대의 변화가 주는 구체적 현실과 거리가 멀어 독자는 뜬구름, 희미한 바다 외에 그 너머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66).

=> '제국' 개념의 근본 특징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제국의 지배에는 한계가 없다. '제국'의 지배는 세계의 깊숙한 곳까지 확장하는 사회 질서의 모든 작동 영역 위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제국' 개념은 사실상 전체 문명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지배 주체도, 지배 대상도 뚜렷하지 않다. 모든 것이자, 아무 것도 아니다.
=> 생체권력 개념으로 이어짐.

2. 홀의 정체성정치 혹은 정체성정치를 넘어선 다중

*** 정체성정치에 대한 시각(홀과 지젝)**

스튜어트 홀은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움직이지 못하는 좌파의 실패를 지적하며, 그들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에 집착한다고 비판하였다.

홀은 *"누군가는 비록 그곳이 단순히 '상상적 공동체'이더라도 어디인가로부터 온 것이며, 모종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정체성과 동일시 과정의 순간을 무시하는 정치학은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70)*라고 말하며, 정체성정치를 강조하였다.

반면 지젝은 이러한 홀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 다시 말해 해방투쟁에서 서로 손잡게 하는 것은 정체성 문화가 아니다. 서로 공유된 투쟁에서 사람들을 결집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문화의 '몫 없는 자', 억압받고 약탈당하며 고통받는 자들이다"(70-71).

지젝은 정체성 정치가 젠더, 인종 그리고 성적 우선성 같은 개체성의 '이차적' 쟁점으로 핵심적인 보편적 계급투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인종과 젠더 측면에서의 투쟁보다 계급투쟁을 우선시한다(71).

지젝은 이와 같이, 정체성을 통한 구성이 아니라, 보편적, 총체적인 전지구적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정체성정치에 대한 시각(하트와 네그리)**

네그리와 하트는 정체성정치를 폐기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혁명운동은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 혁명정치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 없다. […] 반대로 모든 정체성정치가 역설적으로 정치성 폐기를 목표로 하는, 평행선적인 혁명적 사고와 실천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Commonwealth 328).
=> 정체성 폐기란 과연 가능할까?

"정체성은 소유이고, 다른 대부분의 소유의 정체성 형태처럼 배제와 위계질서의 힘을 휘두르는 명칭이고 소유이다. […] 소유로서의 정체성은 아무리 혁명적이어도 항상 소유의 공화국의 통제구조 안에 편입되어야만 한다. 혁명적인 것이 되기 위해 정체성정치는 앞으로 더 전진하는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Commonwealth 328-30).

“정체성에 고착된 정치는 주체성의 생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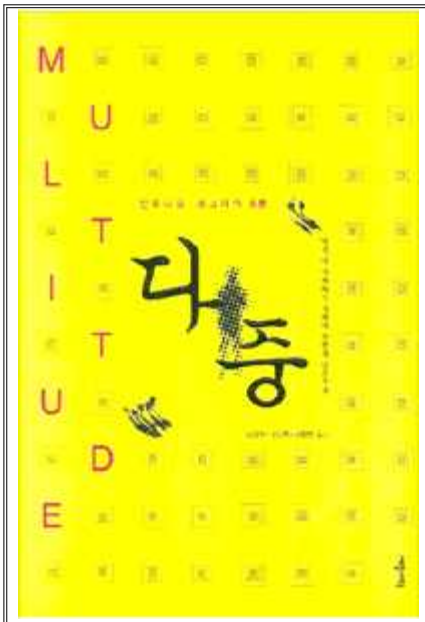
다중이 세계화된 비물질 노동과 정보네트워크의 산물로 ‘위치성’과 지역성의 중재 없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젠더, 인종, 성적 취향 형태 등의 정체성정치 너머에 있다(82).

『제국』에서 다중의 속박에 대한 저항은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민족’에 속하는 소속감에 의한 ‘예속에 반대하는 투쟁’이다(88).

3. 하트와 네그리의 다중과 젠더, 계급, 인종 쟁점

*** 다중(multitude)의 개념**

네그리의 개념으로서, 개별자들이 특이성(singularity)을 지닌 채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집단적인 형상을 말한다. 특정한 지배 장치에 의해 구조화되기보다는, 자신들의 개별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성을 키워나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여기서 공통성이란 동질성과는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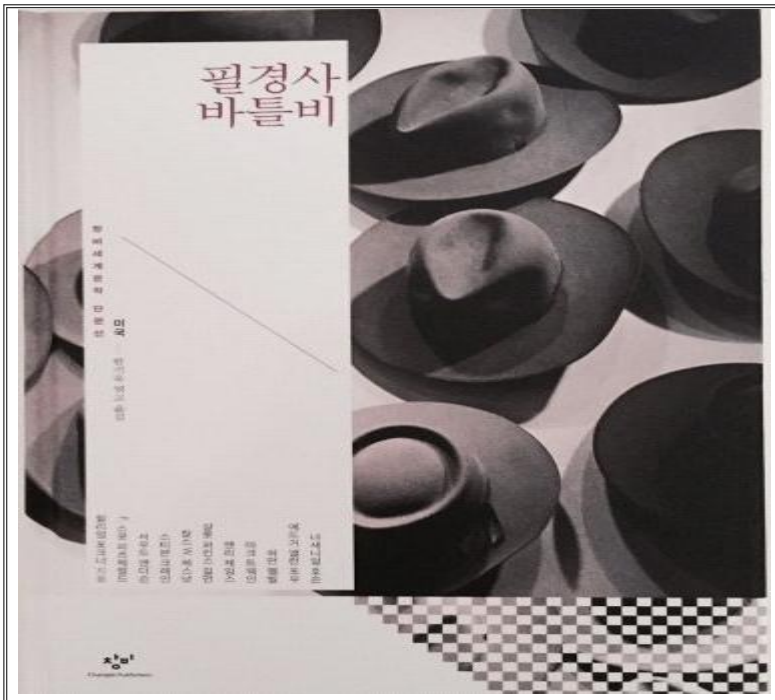
	
다중(multitude): 특이성(singularity)을 유지하면서 공통성을 키워나가는 주체적인 존재. 개별자들의 고유성과 욕망, 역능을 강조하는 개념.	대중(mass): 자본주의 사회에서 획일화되고 매체에 의해 주조되며 수동적인 존재

복수성(multiplicity): 다양성. 하나의 보편자나 절대자로 환원되지 않고, 개별적 강렬함을 지닌 채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다중’은 ‘특이성’을 ‘협동적’인 창조성 속에서 ‘생성’을 창출해낸다. ‘제국’의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적 협동의 네트워크 속에서 대중의 자율적 자치를 구성해나가야 한다.

‘다중’이 제국의 관리방식 안에서 새로운 금을 긋고 다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만들어낼 때, 제국의 위계질서 및 지배구조는 위기에 처한다. ‘다중’은 제국의 지배방식과는 다르게 자기구성을 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제국 권력이 강요하는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제국 시대의 사회운동은 바로 제국 속에서 ‘다중’의 역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국 시대의 대중운동은 바로 제국의 훈육화를 거부하는 대중의 자율성 확보 과정이다.

과거에 사보타지가 저항의 근본 개념이었던 반면, ‘제국’적 통제 시대에는 ‘탈주’가 저항의 근본 개념이다. 탈주는 어떤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 권력의 장소를 철거하는(비우는) 것이다. 탈주는 ‘제국’적 탈근대 ‘안에서 반대하는’ 강력한 계급투쟁의 일환이다.



허먼 멜빌, 「필경사 바틀비」

네그리와 하트는 바틀비의 “절대적인 거부”(absolute refusal)를 ‘제국’(국민국가 주권의 쇠퇴와 세계시장의 실현과 더불어 도래하는 새로운 전지구적 주권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정치의 시작”(the beginning of liberatory politics)이라고 평가한다.

투쟁한다는 것은 제국 안에서 투쟁하면서도 변화해가는 제국의 영역 위에서 제국에 저항하여 새로운 공동체들, 대안적인 정치 조직을 자율적으로 건설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개념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사회의 약탈적 구조로부터 주체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트와 네그리의 혁명정치와 다중 개념은 젠더, 계급 그리고 인종 이론가들에 의해 우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다중은 젠더와 계급 그리고 인종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74-75)

퀸비는 두 사람의 다중 개념이 ‘젠더화된 특이성’을 무시한다고 본다. [...] [퀸비는] 특이성과 보편성의 이분법적 분리에 대한 딜레마를 암시하면서 하트와 네그리의 다중 개념이 소위 다중의 ‘특이한 보편성’ 때문에 젠더 이슈를 취급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76-77)

러스틴은 다중의 저항을 하트와 네그리가 암시한 대로 글로벌 자본의 기정사실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가능한 결과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낙관적이고, 제국의 어두운 면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두 사람의 책이 2001년 9.11 이전인 세계화의 평화로운 시기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7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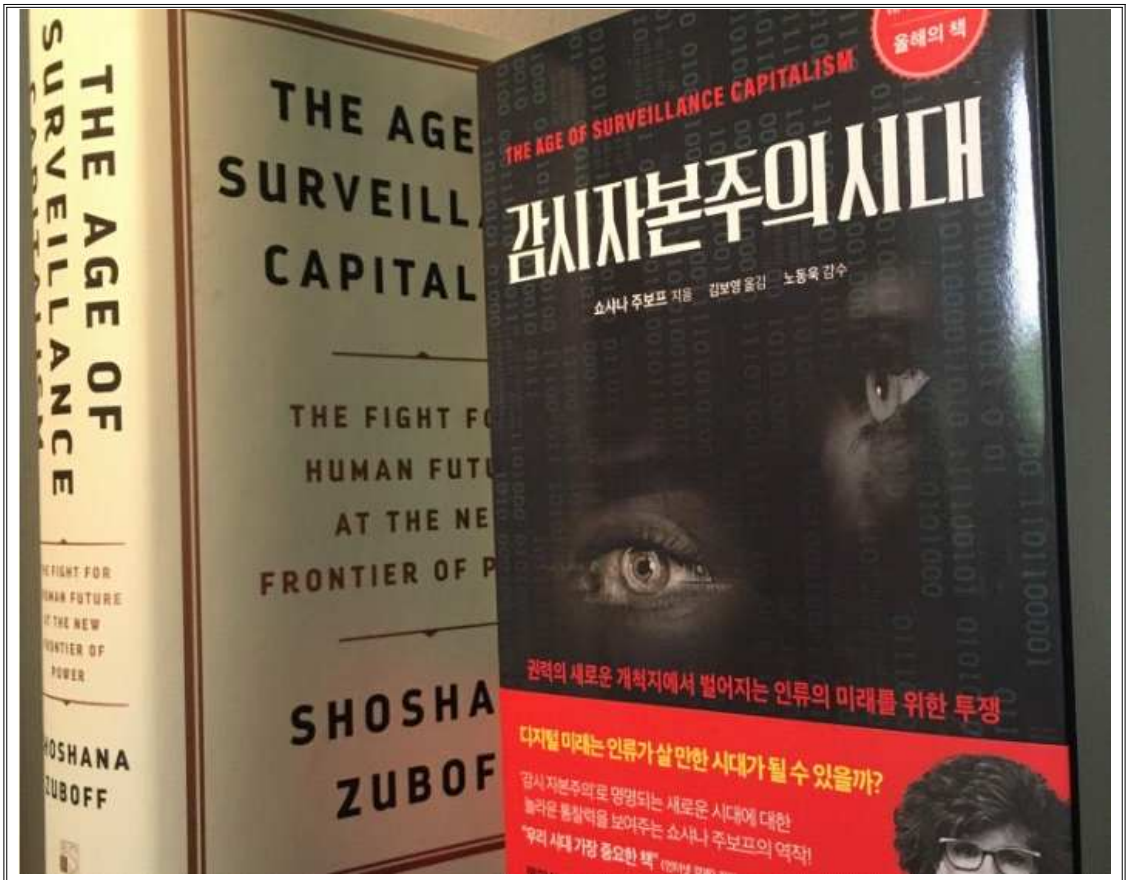
=>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을 ‘자본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잠재적으로는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다중의 자율적 소통과 협동을 강조함으로써 다중을 낭만화 혹은 탈정치화 하고 있다.

4. 욕망, 실재, 생명정치 그리고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 생체정치의 개념**

생체정치(biopolitics)라는 개념은 푸코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정치가 대표를 만들거나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면, 생체정치는 대중의 일상적인 삶 자체에 개입하여 이를 변형시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제국은 인간 상호 작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을 직접 지배한다. 제국의 지배 대상은 사회생활 전체이며 따라서 제국은 전형적인 생체권력 형태를 띤다.



쇼사나 주보프의『감시 자본주의 사회』

*** 네그리와 하트의 생체정치 개념**

아감벤의 생명정치와 네그리와 하트의 생명정치는 푸코와 슈미트의 주권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명정치는 서로 반대이다(98).

네그리와 하트 이론에서 생명정치는 다중의 생산적 힘을 생산하며 긍정적이다(101).

=> 물질 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의 전환. 비물질 노동은 경제적인 영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생산 및 재생산에 개입하여,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경향을 띤다는 점에서 생체정치적이다. 여기에서 주체성의 생산, 즉 사회에서 새로운 주체성들의 창조 및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